

新

鳳

봉

小

仙

선

說

花

화

卷

上



1913 5F

80

© Kodak, 2007 TM: Kodak

Kodak Color Control Patches

Blue

Cyan

Green

Yell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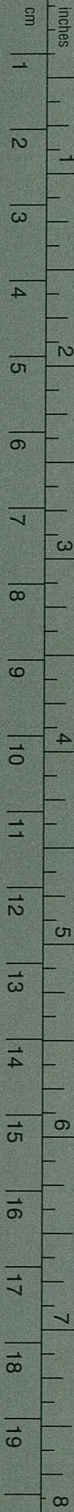
Red

Magenta

White

3/Color

Black



봉선화

(鳳仙花)

간밤에 남풍이 솔솔 불더니 가느비가 부실부실 오는데 분홍적소에 반물베
 초마를 강동하게 입고 그 우에 노랑헝겊초마를 밧삭 늘너썬 계집 아히가머
 리에 지삭갓을 쓰고 한손에는 짐신을 버셔 들고 또한손에는 여러가지 화초
 모종을 들고 승청동 기천언덕위 남향 기와집으로 드러가 건너스방 뒤것으
 로 도라가며

식아기씨 원네가 압닥에 가서 싹모종 었디 왓습니다 이것을 었의다 심을
 스가오

건너방문이 바시시 열너더니 싹갓흔 절문 부인이 현던 바느질을 바느질교리
 위에다 접첩접첩 접어노코

싹 모종을 었의가 그러케 어더 왓느냐 광에 가서 팽이를 갖다가 쳐담밧을
 푹푹파서 흙을 보드럽게 만들고 쓸러지지 안케 단단히 잘심어라 아이그
 닥에 모종이 만러냐

그 계집 아히가 손에 든 모종을 드러 보이며

에그만흔것이 다무엇이야오 이런두갑절도 못되는것을 었드러온 사람이 었
 지만흔지 그닥아씨게서 정신을 못츠리시게 줄이시던걸이오 원네는 었드러

웃다가 어이가 업서서 아모말도 못하고 우두커니 섰노라닛가 그뒤 시아가씨
게서 보시더니 니도 모종 엇드러왔느냐 다른사람은 멧포리식 아니주시고 씬
네만 이리케 만히 주섯서오

안방문 소리가 덜컥하고 나더니 한산세져 당홍초마에 황관스 짝기적습을 입
은 열두어살가량 썸되야 퇴이는 식씨아희가 퇴청마루로 동동건너오더니 건넌
방문을 외락열며

은네야 그게 무슨 썸모종이나 나 좀쥬렴은나

(은네) 차근아씨도 썸말습도 호시오 한턱안에서 나 좀쥬는것이 다무엇이오
여기심으면 시아가씨도 보시고 차근아씨도 보시지 그것은 썸로달나고 혀다
가 엇다가 심으실랴오

그식씨에 열골이 북그락 폴르락하더니

고만두렴은나 안방뒤것에는 좀심으면큰일나니

(은) 누가큰일난대습닛가 마님게서 상제님이신잇가 화초를심으지 못하게 하
실줄알고 엇줍는 말습시오 그리호즈 안방으로 암범우는소리긋치 그집에성
주가 잇스면 보핍싸지고 도말할만치 소리를 버럭질너서

관옥아게가무엇을 아귀닷음을 호고섯느냐 이년씩근너오니라

관옥이가 암상에못의의여 두눈에눈물이 밋거니 듯거니호며 건너오며 저의어

머니 드를만치 입속말로

고년이 언제적제도야 그짜지썸모종 좀들나닛가 안이주게주기실으면 고만
이지 상제님도 화초를심은나 마느냐 니가들닛지 어머니가 들나고호섯나
안방에서 관옥이부르든 부인은 그집주인 려승지의 삼취부인구씨라 초산으로
관옥을 낳코다시성산을못호얏는티 려승지는여러번 변상을당호고 화스김에술
만 작구되먹어 묵은정신으로잇슬 썸별노업고 집안티 소사를구씨가니 주장으
로 전혀호면서집안식구를 손아귀에다니코 주엿다폄다 주물너주물너호야 전
실소싱 아달니외를 원슈에긋긋치 달달복는티이라
그날관옥이와 은네와담도난소리를듯고 로기가등등호야

(구) 관옥아 그리도 못건너오고 게잇느냐

(란) 예-근너가요

(구) 이년씩근너와

관옥이가근너오더니 저의어먼니 압해가 빗겨서서 홀작홀작울며 고기를 푹숙
이고 두손으로 초마실만 돌돌말랴다 폄다호는티 구씨가한참 물그림이건너다
보더니

(구) 웬곡절이나 게집이년이 공연히 눈설리 동동붓도록 울고단이니

(란) 은네가썸모종을 그득히엇어다가 건넌방뒤것히다 심으기에 좀달나고호

엿더나 동양도안이 주고 쪽박을 써서 드린다고 모종이나 아니 주었스면 고만이 지어머나가 셋모종을 가져오라 할진것처럼상제도 화초를심으느니 마느니 하고여러말을하닛가 듯기에분하지 안아히요

(구) 이의 이놈의집안 잘되겟다 며느리아씨님이 소위시어미를넛도리로알더니 며느리교전비싸지 다행실들 가라치려드느구나

며느리되느부인은 양천박츨판에 막닉설이라 박씨가그광경을당하야 엿지황송흔지은네가진모종을 그티로가져오라하야 조귀손소들고 안방으로 건너와란 옥을주며

(박) 자근아씨 은네란년이 미련하야 그리히구려 셋모종 여기가져왔소 다텔어주리다 엿다심으릿가

(란) 누가심어달나는 이리주오 다텔으께

구씨가와락달여드려 란옥에 다깅이를 탁탁두셔너번 주어박으며

(구) 이년그잘란 것뭇심으면 저구려지겟니 어미망신을 그러케식이고도이리 달나고하게 이년보기실라 다텔히써썩죽거라 웬집안이 모다시원상쾌하게

(박) 은네란년이 철모로고 미련히써 자근아씨가 달나는것을 얼룩아니 드렸지어머님께향하야써 제가엇의가죽조고 무엇이라고 할앗겟습닛가

(구) 이의 그에셔더하면 뺨을뭇쳐써 걱정이냐 다텔집상뭇흔것이 무엇인티

그년이상데가 화초를심으느나 마느나하고 비평을하엿다더나 오냐그년코튼 당당명스 량반의딤 교전비가 나코흔상년에 설을눈썹딩이에나 츄게보겟느냐

박씨가아모디답도다시뭇하고 압힌공손이섯다가 구씨가먹든담비를 툅툅썰러 바리고 의즈에가의지를하야 소설책을펴들고 소리업시 두어장보다가 손에드러던책을 스프르힘업시써러드리고 잠이드러코을고난지라 박씨가 감안이문을닫고 뒤스것으로드러가 광이를차들고 장독티압홀 비을마즈며 툅툅과고 그모종을 모다심엿더라

계집아히들마음은 다일반이라 은네가일건으더은 모종을다빼앗기고 션션히하던츠에 지츠력이 봉션화모종흔가지가 마루바닥에 썰러졌는지라 그것을집어다가건너방뒤창압담밧히다 단단히심으고 아츄저녁으로 물을주어길르더라

화초라하느것은 어린아히위하듯 말으면물을주고 풀이나면 뒀어주고 거름도하고 버레도잡으주어야 무성하느 법이여날 그집안방뒤에 박씨부인이심어준 화초는 란옥이라야 가징시러써 심심히도물호호변아니주고 안방에서 드느하느

은히중 추월은 상던압히써 알날알날 가즌말은일슈잘히도 게르기로는 한바리에실을 썩이업느것이라 제가적이사름년코흔면 박씨부인이 비를마즈며 그화초심을썩에도 저리가십시오하고 제가심으던지 그러치안이하면 제가팔것이냐

아찌게서는 심으십시오 홀터인디 그것히셔 말썰름이 보면서도 모로논데하고 급기 그화초가 썩리가다부터 살아는뒤에도 오좀훈방을 풀하나 썩아 주지아니 하니 그화초가 자를줄은모르고 노랑썩치푸여 점점쌍속으로만 드러가니 란옥 이가시시로 알상을너여

사름들리 나를업슈히 녀이더나 화초도나을 업수히녀여 저모양으로 안이자 라는 아마심사로 썩리를모다 잘으고 닷다심어준것이야 그러치안으면 훈날 훈시에 심엇는디 저의봉선화는 번성히셔 썩치훈박긋치뤄고 우리것은 죠모 양으로조리복손이 가 되여갈샤

구씨가적이 사름스러우면 자기썩이 그모양으로 소견업는말을훈면

에 이소견업는것은 썩리를잘으고 줄이가잇는나 썩모종이 어린은희와 긋히 셔 부즈런이것더줄랐이란다

훈야 남의이미훈 소리를못하게 단속을훈련마는 이는엇지된위인인지 그썩에 갑절치게 이미훈말을헌다

더년이처음지너는 깃스롭게짓거리고 안졌게 그러면 그노쥬심사에 그썩심 어너잘보라고 닷다준줄 알앗더냐 그리도이런말 드러만보아라 일긴다긋 다심어준공업시 원동훈말로 모훈훈다고안이하나 이년요란실립다 아모말 도말라라 남이드르면 우리만 병신구실훈다

웃물이 흐리면 아티스물도 흐린것은 정훈이차라 구미호가 되여 가랏다가 스 림으로티여는 추월이년은 덩다라무엇이 그리분훈지 모중도가셔 드러다보고 상면에껏희와 안졌기도하며 눈귀가 실썩도하코 코스방울이 발낭々하기도 하다가

(추) 마님은네란년은 상것이닛가 무엇을 알름잇가 아모짓을훈티도 오히려 예스을시다마는 쇠아기씨썩셔야 량반님네체통으로 웃지면그리심잇가

에구망칙히라 저의들갓흔 상것에집안이라도 쇠어머니를속이고 시누의를속 이어서 그모양으로 모음을 쓰지안할터이을시다 바로걱정말고 야단을 만는 티도 그썩모종을 안이녀여 늦난일이을치 외양으로 인스도리를 츠리논데하 고 음히를 그러케붓친단 말습시오 쇠네갓흔천치는 다시업셔오 그런줄은모 로고어저씨도 은에다려 이이 건너방뒤에 심은봉선화는 엇더케히셔 저리무 성하고 안방뒤에 심은것은 웬서슴으로 안이자라나하얏더니 고년에티답 이 안방뒤가 건너방만치 걸지를못한것이로구나 그러치안이훈면 한날훈시 에심은것이 엇던것은더자라고 엇던것은 안이잘란단 말이나하며 암상을되 집어너기에 쇠네속종으로 더년이 웨저리 암상을너나하얏더니 도적어발이 저려셔 그리훈습니다그려 에그고년 앙금도하야라 이런말습습기가 쇠네도 리에는 안이되였지오 만은 은네년남으리 무엇훈잇가 쇠아기씨게셔 잘못하

시논 일이지오

그말뜻히 란옥이 발씩아러나며

엇의얼마나 그뜻을자미있게 잘보나보즈 심스두엇다 좀먹일사

하고 건너방뒤로 도라가더니 방안에 음성이들일만치

그봉선화뜻 잘뒤엿다 싸다가손톱에 물이나 좀드리겟다

하고 사정업시 핀뜻미친뜻을 모조리 너리박살을하야 빛가지만딩그러케 남기

고가며 의썩진 은네을 언저노코 박씨부인까지 씹어말흐마티를 하고간다

너가이뜻을싸고 은네연에게 육을적지안아 먹겟지 우리집안은 동그간은정

이엇지오오라진지 나를봉선화 한포귀만치도 안이녀일러인디

박씨난 그방안에서 바느질을하며 조그식누의 봉선화싸가는것과 그 짓거리논

말을 번연하들으면서도 귀먹어못듣는데 너다보지도 안이하고잇는디 마침은

네가드러와 보더니 샘짜늘나며

에그먼이 봉선화를 누가져러케 쥐어뚫어갓슴잇가 한참무성하야 뚫이 꽃어

엽부게 뒤난것을 스못박살썬엇지 죠셔으로물을썬며 날마다그공을들엿더니

십년공부가 나무아미타불리되얏지 아씨이뜻을누가 이디경을 만드릿슴닛가

(박) 웨이리떠드느냐 요란실업다 그사짓것 업서젧기로 관계잇느냐 그에서더

흔사름도죽기도하고 살기도하난디

란옥이가 제가흔간은 잇스닛가 필경무슨 뒤스공론이 잇슬줄알고 추월이를식
여엿드러보라하엿더라

추월이논 무슨 큰성공이나 할일이닛난듯이 신씩을버셔들고 보선바닥으로감
안감안히 건넌방압 문설쥬에가 귀를썩티고 한구히섯더니 안방뒤로 총알갓치
도라와서 당장별변과나 싱긴듯이 혀를해해너두르고 조근아씨를 부르며 한마
디를열마디식은 못히여 말을민든다

(추) 자근아씨 봉선화를드리고 심으시면 흰네다려 말슴을하셔스면 서촉가쥬
문을히셔라도 어련이으더다 드릿슬나구 것넌방뒤겟히 닛는것을싸오셔슴잇
가

(란) 웨무엇이라고 공론절을하더냐

(추) 공론이 다무엇임닛가 흰네는나히 몇살못되얏셔도 처음드러 보와슴이다
석아기씨는 무슨말슴을하시던지 상던부모라니 흰네가 올은니 그르니 말을
감히하겟슴닛가만은 은네란넌은 우아리력이 고러케보들보들하게 올은날리
난지 도담실립교 스지흔넌도보앗지

란옥이논 밋쳐못기도전에 뒤스미다지를 드르르열어부치며 구씨가눈을실썩하
게쓰고 입살이벌렁벌렁하며

(구) 요년봉선화 못드려 당장겨구러지겟느냐 티상노군 아가씨보시논뜻을싸

오교 무슨육을 엮어먹게 요년순복장이을 잘나눗츠
츠히아 그리노주가 그잘량호싯좀싸왔다고 무엇이라고 육을하더냐 좀드러
보즈

(츠히) 호도엄청이나서 원네는엮줄슈업습니다 또 그리고 드르면병이고 안이드
르면 약이라고 무엇이 신싯소리라고 드르시면 무엇을호셔요

(구) 이년너싸지 나를넘보려드난나 상던을육을호던지 약를먹여 죽이던지 소
리업는총으로 노런지 다관계치 안한말이나

(츠히) 원네가 무슨죄가있다고 이리케 싸증을호셔오 닥네가 호도 위롱튀롱한
말이 만으싯가가 저호즈가되야 입을써여노기도 겁나난잇가 일똥말를 엮좁
지를 못호얏지오

(구) 집안이 그리호스룩 무슨말을 듯난티로 너게다통고호여 주어야 네도리
에올치

(츠히) 원네는 미련호소견에 원네드르티로 말슴을엮쥬었다가 마담게셔 분정지
도에 싸지람이나 티단이호시면 독듬에탕관으로 원네만 죽어날러이닛가 못
넛쥬었다니 죽으나스노 엮좁지오

(구) 오이 이년호마디도 세지말고 너드르티로 말을히야 망정이지 한마디라
도 말을싸다는 너손에너부터 죽고남지 못호리라

(츠히) 별말습이 안이야오 그싸지봉선화 싯시호상무엇임닛가 즈근아싸게셔 손

에물을드리시라고 싸섯던지 가지고놀으시라고 싸섯던지 그티단호것좀싸섯
다고 종상전아 그리케함부루 말힐것이 무엇이오닛가 은네년은 죽을공를다

들여 호참무성한것을 방정맛게 박살을호야 십년공부에 나무아미타불이 되
얏지 어러버릇 자랄버릇이라고 손버릇이 언은시부터 그리호고 이다음장취

성이 잇슬사 도호모종은 다싸아사다심으더너 극성죽피로 잘라지을 못호
얏던것이로군 남에 싸에떠러진 지초력이호나 엮어심어 조셔으로 물을준다

오좁을준다 북을쥬고 미다른것을 심스노라 못싯어갓지호며 전정구말이 갓
호신 즈근아싸다려 장취성이업다고 악담비스름히호고 아싸게셔는 그년쥬

동이 그리케놀나는것을 거덩은 안이호시고 그년에말을 싸르셔셔 분호시너
원통호시너호시며 그독호 손버릇이 싯은거녕 녁넉키 사름도 죽이갓다고호
시너 미련호원네 소견에도 잘호시논일안지 알슈업습니다

구씨가 손벽을 쌍쌍치며
(구) 무엇이라고히 이것을본보기를 단단히호번니야지 그티로 두었다는 너입
에똥도 너너히호킷다 그리저의들이 즈근아싸에게 호호야 그싸위으깁이질
을호더란말나냐
(란) 어머니 나는저에압히가 칼을몰고 업드러져셔라도 죽어셔 가슴이시원들

할게 할야 줄러이야오

(구) 에구 못싱긴 소리도 짓거린다 웨죽어 저의들 소원성취하라고 죽어이년 못
싱긴 소리작작하고 감안이닛거라 니 당장 잡아너다가 문초를좀하겟다

추월이가 손짓슬 화々니 두루며

(추) 마님도 싹하셔라 마님께서 문초를하시면 바로 토설리될싹 심으심닛가
그런일리업다고 성작이를 똑떼면 공연히 덕니만요관하고 속모로는 남들에
게 마님모녀분만 그른양으로 비평을 드르시시오

(구) 저의가 마치가되여도 저의가바로 토설을안이 할러이나 또는남에 평론좀
듯난것이 상관이닛느냐 니속만시원하얏스면 고만이지

(추) 그리지 마르시구오

하더니 추월이가 무슨말을 느즈느즈하게닛가 구씨가 고기를 싹데싹데하며
추월이등을 똑똑두다린다

(구) 오나 네말이 심분근리하다 네가가서 령감씩셔 샤랑에 깨신가보아서 게
시거던 니셔엿줍는다고하여라

(추) 마님싹하셔라 금방엿줍닛가 그리시네 그러케급히 서들지마르시고 령감
께서 진지를잡수실러 드러오시거든 자근아씨씩여 그러케하셔오

(구) 령감께서 약주만취하시면 두턱셋씩 흔히 진지를걸너뛰사느티 한시지나

두시지나 날가고밤이감면분이다풀어지고 물거셔 일이 되겟느냐

(추) 그러면 원네가지금나아가서 약주가과히 취하시지 안이하섯거든 진지를
엿줍것이니 저녁진지를 어셔차리시시오

(구) 오나 그걱정은말고 나아가 엿줍기만하난디 네보아서 시스런손임이 게
시거든 바로 엿줍자를말고 그량반이 레동차려가도록 귀에드러가게 말을하
야 그량반간뒤에 여주어라

(추) 원네벌셔 그성각을하얏습니다

이떡러승디가 술이반취하야 말하기조할만치 되얏느티
추월이가 나와 창밧헤와 고기를다소곳하고

(추) 령감마님 진지엿줍심이다

(려) 진지가무슨 진지란 말이나

(추) 저녁진지야오

(려) 벌셔저역밥이 되얏셔 오나 갑々하티 아모디에서는 먹겟다 이리 니여오
나라

추월이가 제소료와 제스가벗나가닛가 그가막혀셔 아모말도못하고 쥬져々々
하며 드러가지를안이하니

(려) 웨드러가 신분림을 안이하고 거괴잇느냐

할게 할야 줄러이야오

(구) 에구 못싱긴 소리도 짓거린다 웨죽어 저의들 소원성취하라고 죽어이년 못
싱긴 소리작작하고 감안이닛거라 니 당장 잡아너다가 문초를좀하겟다

추월이가 손짓슬 화々니 두루며

(추) 마님도 싹하셔라 마님께서 문초를하시면 바로 토설리될싹 심으심닛가
그런일리업다고 성작이를 똑떼면 공연히 덕니만요관하고 속모로는 남들에
게 마님모녀분만 그른양으로 비평을 드르시시오

(구) 저의가 마치가되여도 저의가바로 토설을안이 할러이나 또는남에 평론좀
듯난것이 상관이닛느냐 니속만시원하얏스면 고만이지

(추) 그리지 마르시구오

하더니 추월이가 무슨말을 느즈느즈하게닛가 구씨가 고기를 싹데싹데하며
추월이등을 똑똑두다린다

(구) 오나 네말이 심분근리하다 네가가서 령감씩셔 샤랑에 깨신가보아서 게
시거던 니셔엿줍는다고하여라

(추) 마님싹하셔라 금방엿줍닛가 그리시네 그러케급히 서들지마르시고 령감
께서 진지를잡수실러 드러오시거든 자근아씨씩여 그러케하셔오

(구) 령감께서 약주만취하시면 두턱셋씩 흔히 진지를걸너뛰사느티 한시지나

두시지나 날가고밤이감면분이다풀어지고 물거셔 일이 되겟느냐

(추) 그러면 원네가지금나아가서 약주가과히 취하시지 안이하섯거든 진지를
엿줍것이니 저녁진지를 어셔차리시시오

(구) 오나 그걱정은말고 나아가 엿줍기만하난디 네보아서 시스런손임이 게
시거든 바로 엿줍자를말고 그량반이 레동차려가도록 귀에드러가게 말을하
야 그량반간뒤에 여주어라

(추) 원네벌셔 그성각을하얏습니다

이떡러승디가 술이반취하야 말하기조할만치 되얏느티
추월이가 나와 창밧헤와 고기를다소곳하고

(추) 령감마님 진지엿줍심이다

(려) 진지가무슨 진지란 말이나

(추) 저녁진지야오

(려) 벌셔저역밥이 되얏셔 오나 갑々하티 아모디에서는 먹겟다 이리 니여오
나라

추월이가 제소료와 제스가벗나가닛가 그가막혀셔 아모말도못하고 쥬져々々
하며 드러가지를안이하니

(려) 웨드러가 신분림을 안이하고 거괴잇느냐

(추) 마님께서 진지상에 반찬도 번々치 못하디 손님이나 오셔々 보시면 창피
실립다고 진지상을 너보네시라다가 령감마님께 드러오시라고 엿쥬라하섯
세오

려승디가 벌떡이러나며

에 | 고년 성가시럽게도군다 오냐드러가거라 드러감아

려승디난 아모물씩모로고 밥을먹으려안으로 드러가니 전에는 즈기가 드러가
면 마초나와 반가히맛던 구씨가 아리목에 설로파고 안천뜻시 석안져셔 윈
손목뽕썩거 턱을 느지막히괴이고 눈을반쯤 너리설고 안져셔 담비만푼々썰더
나 흠숨흔번을 려승디씨가 룯을듯하게 쉬며 혼조말로

에그귀신이 무엇을먹고스노 나갓치 천흔 인성틀 안이잡아가게 너속이러케
상하는것을 하날이나알고 쟁이나알지 누가알사

려승디가 구씨겻히가 안지며

(려) 웨그리하오 누가무어아라고 흠던넛가

(구)

(려) 웨말을안이하오 으드레며 며나리에 설에 령감에 모다잇는디 무엇이 낮바

셔 천흔인성이니 귀신이 안이잡아가는니하오

(구) 나는 아달도업고 며나리도업고 귀씨람이웃흔 설하나밭게업쇼 령감도계

시가는히도 김피성각하면 업스나일반이오

(려) 여보무슨 일에 화가났난지 알슈난 업소만은 화난다고말도 그러케 흠부
로하오

자고로 요악흔계집에눈에는 눈물이무상시라도 등터를흥고있다가 티소롭지안
은일에도 석암솟듯 흘으며

(구) 여보령감도 아스시오 쓸터업는 설조식일망정 자식늦코사는가속을이러
케박터를흥시오 니가무슨 말을 함부로헛길너 칙망부터 너노오시오

(려) 여보나가 칙망이 안이라 아달이업는너 며느리가업는이 천만부당흔소리
을하닛가 흠부루말들하나나흔것난디 그말이무엇이 야속하야셔 이리하오

구씨가 그디답은 안이하고 웃간에섯는 란옥이를 별락갓치부르더니

란옥아 이년너부터 이날이시로뒤여져라 그리야니가 눈을감고 죽겟다 나만
죽고네가살면 기밥에도도리로 더글더글글다가 죽을터이다 너눈이 시필어

케살아셔도 별々기막헌소조를 다당하난디 무슨썩々흔 인성이라고네나너
나 괴를쓰고살라무엇을 흥잔말이나

려승디가 밧앗든밥상을 탁물너노으며

(려) 킷셜스럽게 셔드넛가 스름이 밥을먹을슈가잇나

(구) 누가 진지를 잡숫지말나오 남은오장이설러셔 나오난말을 킷셜이라고

에 구웃지 면 더러게 속이 무진편호구

(려) 티관절 이게 웬곡절이오 죽던지 살던지 말이나 좀 시원스럽게 하오

(구) 더모양으로 무정하게 속을 쓰난량반이 말은 드러소용이 무엇이요 다 알아 보왔소 고만두오

(려) 이런제 무정척도 분수가잇지 무슨일인지 말도안이하고 스템을성으로 셋사스르기만하네

(구) 나갓치 만만호련이 셋사스르는 것이다 무엇이오 그리말씀드르시오 니가 기껏거니 돛갓거니 상년의건이 빅덩에 떨어거니 이집주모는 주모지오

(려) 아모렴 주모지

(구) 니가이집에 정실은 정실이지오

(려) 아모렴 정실이지

(구) 정실이고보면 너속으로 낮치만안이 헛다뿐이지 아달이라던지 며느리가 제어미로 티점을하야올치오

(려) 그게무슨소리로 웨경현이가 무엇이라고 지각업시흡던잇가

(구) 경현이는 일일히 다 잘하는줄 알앗삽던닛가 경현이가집에도 잇지도안이 호터 무엇이라하오 그이난너속으로 낮치만 안이 할뿐이지 다섯쌀 먹은것을 내손으로길너너여 내손으로갈르쳐 장가서지 드렸슨잇가 제가무슨소견업는

말을호던지 응석숨아듯고 아모려도혐의 업소마는.....

(려) 그러면 며느리가 무엇이라고 합던잇가 그것역시 아직 솟급질이나흐나 에 무슨철리났겟소 마누라논 그나이를 못지너보앗소 무슨말을헛난지 알슈논 업스나 응석겸지롱으로 돌이지 무엇을괘림하야 듯는단 말이오

(구) 에그 령감은 비속도 무던해편호오 령감못히서는 며느리에게 쌈을 마저 도아모말을안이하겟소 아모렴 그럴터이지 나긔흔상년이 량반 며느리에게 티점받기를 바라겟소

(려) 요란실업소 아직철모로는 이히가 범빅사를 진션진미하기가쉽소 후잘못 호난 일리잇거던 그러치 안이호이라고 효유히일르지 무엇을 분히호단말이 요

(구) 일으단이 나긔흔년이 언감성심하일너오 지금 며나남아씨가 소위식어미 라는물건을 교환호려드느데오

(려) 무슨 그럴이가잇소

(구) 무슨 그럴이가잇셔오 당신이목도를 못히스닛가 니가 무함호는줄로아 시나보구려 업소 나눈나은 몇살안이되얏셔도 거짓말 한마디 허본적이업고 남에이리호소리 호적도업소

(려) 티관절 무슨소리를듯고 이리오 말이나호오

(구) 고만두시오 내말은 거 존말인디 드러무엇할실랴오 귀천남을히 무엇할겘 소 소경된내죄이지 우리부모가 허구만흔흔쳐를 다바리고 무슨큰 죄덕이나 할줄알고 량반부인소성잇는집에로 식짐들보내여서 이디경을당하게할지 쓴최도달면 어렵다고 그 무림성선스흔 려승지도 골이나닛가호랑이보다 더무 서워하던 구씨를 흘셀리고 벌씩이러나며

에 이놈에 집안에 불이나싸질으고 금강산으로 드러가 아모루업시 중노 릿이나할여야지 사름이속이상히 견딜슈가잇나 뒤도안이다라보고 밧그로나아갈나하니 구씨가와락달여들어 자기남편에 허리 씨를 흥쳐잡고

엇의를가실랴오 이리할것업서 나를이자리에서 죽이고가지오 려승지는 나아갈야권이 구씨는못나가게할라거니 이르거니답거니 한심경은 할란을홍다가 려승지가 할일업시 아리스목애가 덜씩 도로주져안지며

(려) 웨이리오 사름을성가실럽게

(구) 여보령감 말씀드르시오 남남세리모야셔 유자성녀할며 살기논 은정과 의리로 스는것인디 령감하시난양을보잇가의리도업고 은정도 업구려 아모 리천흔년이기로 니외되야 스는이상에 소위자식에 소쇼을 당하고 억울할 야 말을흔이 아못쇼록 쇼흔말로 안류을시켜 엇진곡절을 츠찰아보와 니

가 잘못흔일이면 효유를하거나 처분티로할실일이오 니가잘못흔일리안이면 으모리 금지옥엽스흔 량반며느리아씨라도 저를볼너 꾸지져 다시 그런버릇 을못홍도록홍난것이 올치 남애말은 처듯지도 안니홍고 옥박기로만 위슈를 홍시니 여지사질들홍야보시오 니가령감이되고 령감이니가되야 오날광경스 혼일이니스면 므음에원통할겘소 안이할겘소

하며 흙스스게우니 려승지의 볼씩나려나던 비알이 모닥불세치듯홍야져서 썰 썰우숨한번을웃더니

(려) 말은 얼핏안이홍고 화가나닛가 함부루말마디나홍앗소 그랬다고 더리울 것이 무엇이오 도모지 오날야야단이 웬사독이란말이오

(구) 나는 입에올너 말하기도실소 목도한 추월이다려 무러보구려

(려) 추월아 너말허라 웬일이나

추월리가 얼핏말을못홍고 주져주져할난디
 란옥이가 썩루루 저의 아바지압흐로 가며
 (란) 아바지 내가엿줄게
 (려) 오이 네가 리악이를홍야라
 (란) 달은일이 안이라오
 (려) 그리셔

(관) 은네란년이 저기번 비오던날 봉선화 모종을 피만하 었다가 지고 왔기에

내가 좀달나고 흥얏더니 그년이 모종은 주지안이 호고 상제잇는디 싹을심으

라느냐 마느냐 흥며 어머니를 빗디 늦코 별별소리를 흥기에 분흥고안이 썩아서

고만두라고 건너왔더니 형이 그 모종에서 그 중될성부른것 흥나만 건너방뒤에

다심으고 그남어지는 모다긋다주기에 나도 싹타고 흥얏더니 향의손으로 제

다심으고 가기에 그왕심어준것을 씹아 버일필요는 업고 또그왕그티로 두난터

에 무성히되기나 흥라고 추월이식기여 날마다 오좀도주교 짐도미여 주어도

점점 노랑싹치튀이며 쌍속으로 드러가는데 건너방뒤에 심은거는 한날한시

에 심엇것마는 식순야 죽죽나와 싹이 할박송이처럼 탐스럽게 튀엇길니 손

톱에 물을드리고 심피셔 두어송이싸가지고 왔더니 은네란년이 드러와보고

그싹을모다 쥐어썩어바리고 나다려 심스로 몽싹어긋다고 장네성이 잇는이

업는나 별별약담을다 흥며 야단을 잇셔싸지쳤담이다

(려) 나는 큰번과나 난줄알라고나 철모로는 이히드리 소견업시 말을흥거든
불너서썩짓던지 좋아리키셔렸스면 저도경성을흥야 다시난 그버릇을 안이
할것이지 무엇을 그썩짓것을 가리가지고 요란히군단말이나
여보마누라 그년을불너다가 다시는 그런별웃말나고 미쳐나 썩려주교 그
만두오

구씨가 얼골에 피색을 벗겨올녀 소리를바라지른다

(구) 썩러오썩러오 누구를 썩러오 도당록군량반덕 이씨교전비를 나갓흔상년
이 때리고 언의지경에 가즈고 썩려오

(려) 더련말은 넘어과겨흥지 안이 흥오 은네란년이 잘못흥얏스니 그년가지고
말할것이지 머나리는 웨긋치너어가지고 말을흥오 그년에상전된 죄란말이
오 마누라도 종을여럿 부러보지 안이희소 그썩짓것들이 무슨례면들아오

(구) 머나리역성은 데우흥오 여보겨정마르시오 오날부터난 머느리라고 안이
흥고 상전아기싸라고 흥야 주리다 니가이런말을흥면 령감브러도 너용은즈
세모르고 나부터그르게 녀일터이닛가 아모말도 안이희소마는 여보 머느리

아씨는 런흥에제일가는 효부로만 알라습던잇가 은네년은 여복흥야 남에종
질을 하겟소 그썩짓거슨 죽기란히 말흥건데이가 못되오마는 인스로흥던지
례흥으로흥던지 엇의로흥나 그러쳐못할 아씨님이 은네년보다 심비빅비더

흥닛가 겨정이지
(려) 머느리가 무엇이라고 흥는것을 마누라귀로 드렸소 필경 더년 추월이가
황듯고단이며 말전주를 흥것이지

(구) 여보이썩진 추월이는 웨가지고 말을흥오 그리지안니히도 엇의아씨 종
상면이 나를미워 그년싸저못먹겟다 흥난터

간소한 추월이가 쪽쪽울고 기동모퉁이에가 빗겨서며

(추) 선내난 령감장항에 죽싸와도 서으기씨 말슴이라고는 구린입 지린입 씨
여논적이 업슴이다 마님께서 드르시고 항시난말슴이지오

에그 그리지안도 은네란년이 공연히 못먹겄다고항난덕 령감게서 더러케
말슴하시논것을 드르면 더구나 소리업는 총으로 노아죽이라고항겄네

(구) 오냐 칼로 질으거든 칼을밧고 총으로노꺼든 총을밧으렴으나 만만호년
에종이 오작하냐

항더니 와락달여들어 려승지에 허리씨에가 미달녀 자기목아지를리며

며나리 여성작작하고 시원상쾌하야 알튼니싸진것만치 시원히하게 나을어
서 죽여주오

(려) 웨이리 허거를호오 니가며나리 여성을호는것이 안이라 집안이 중용하
즈고 그리호오 머니가 무엇이라고 말물헛난지 모로겄소마는 씨들지마오
남드르면 붓그럽소

천티만상이 구비호구씨가 그제는 청기가 돌도록 씨물엇든 얼골을 우숨을반
좁씨우고

(구) 고만두시오 니가 분정지도에 남붓그러올 생각을 못호고 말마티나 잘못
호얏소 그러나 말른 히야맛시오 고기는 씹어야 맛이라고 닐들 억호심장이

로 머니말를 무단히호겄소마는 하인소시라던지 철모로난 란옥에게 티호
야 넘오할부로 말을호잇가 분셈에 령감게도 말슴을 헛구려

글세 그식짓 봉선화가 무엇이그리 티단호것이라고 란옥이가 장난으로 씨
던지 제손톱에 물을 들리라고 씨던지 멧송이 썬것을 그리야단을호며 그남
무를 아조박살을식여 어린것에게 호호히물을 씨우잘것도업고 쏘논기왕 씨
모종을 안이주면 모로건이외 괴왕쥬논이상에 씨리를 모도잘나서 저모양으
로 말나 빗드러지게할거이 무엇이란 말슴이오

(려) 그랫슬이가 잇소
(구) 니말리 못밧거던 저거를좀 보시구려

하며 뒤미다지를 드르륵열러젼치나 려승디가 니다분족 파연노랏케 말나드러
가거날 니심에괴상히는 녀이면셔도 누루난말로

(려) 올래 봄감을이들러서 온갖모종이 잘안이되나봄디다
(구) 그말슴쫓소 그러면 아모디 심은것이던져 다일반이겄지오

이이 추월야 건니방뒤껏헛가서 씹아니버린 봉선화나무 이리집어오너라
추월이가 맞춤 등덕를호고 씨다가 그말리쫓혀려 지닛가 무엇이 그다지선이
나는지 호다름에 썬여가서 그봉선화나무를 씨씹아들고왔더라 려승지가 물씬
름이보다가 그일이 무심치는 안이호게 생각이드려서

(려) 여보철모로난 은히드리 후잘못하기가 레스온다 요란실립소 고만두시오
 두러누어 춤을비아트면 제얼골에가 썰러짐니다
 (구) 나도싱각하논일이 만으닛가 참스고 또참앗지 그러치안으면 의논막티갓
 혼 너즈식 약담하난것을 범연히듯고 스싱결담인들 안이히겟소
 (려) 감안히잇소 니가조쳐할 도리가잇소
 하더니 추월이을 불너
 네건년방에가셔 식아기씨 엿쥬어오너라
 구씨가 손스길을 해해니들르며

(구) 령감 그위참스고 고만두난이상에 그이난 불너무엇하실랴오 아모말슴도
 못들은체하고 니버려두시오 섯불이 무엇이라고 하섯다가 제가듯고 썰다렸
 스면 도홀련이와 그러치안으면 내나 저를 뭇위하야 무슨말슴을 엿쥬술노
 야속지심을 들것이니 제발덕분 고만두시오

(려) 그도 그러하오 그러면 니가 그일에 뒤하야논 도모지 못드른체하고 니
 버려둘것이니 마누라도 이디말을 다시입밧게 니지를마르시오

(구) 니부탁은 두번도 마르시오
 잇세 박씨는 식누의와 식어머니가 추월를디리고 슈디공론을하고 조그식아바
 지청히드리는것을 보고 무슨 야단이 날썰물나 줄에안진 식몸일체로 마음을

조리고잇는디 은네는 안방에서 썰드난소리를 듯고 련히와셔 고후며

(은) 아씨 이런 그막힐일이 엇의잇슴닛가 안방뒤에 심은썬 모종들 아씨게서
 심스로 썰리를 싰코심엇셔 말나죽는다고 령감메다 말슴을하시닛가 령감게
 서 그말을 고지드르섯난지 추월리다려 아씨을 엿주어오라고 흥심아다

(박) 썰들지말아라
 할마디를하고 억을흔마음을 못의의여 눈물을 더벅더벅 썰러들리며 추월이
 가와셔 불르면가셔 조그 식아버지께 무엇이라고 엿쥬말을 공곰싱각하야본
 다

식어머님께셔 추월의년에 참소를 드르시고 나를썬 괴약흔것으로 식아바님께
 엿쥬앗는디 만일 니가 이명기불연(以明其不然)하야 엿쥬게되면 식어머님을
 그른양으로 말하논모양이 되겟고 그런체하고 잇자니 식아바님께셔 나를아쥬
 런하에 고약흔것으로 녀이실터이니 이일을장차 엿더케하면 쥬흔가

하며 추월이가 잇셔나오나 썰셔나오나 하야도 종리 아모동정이 업스니
 그도이상하다

하고 그잇흔날 쥬션문안을 드러가 아모리 식부모에 눈치를보아도 일호도 아
 모스식이업고 그식어머니난 전보다 더특별리 사랑하난정이 썬썬뎡게굴고 말
 할마디를히도 이와처럼 물봉시럽게 안이하고 썬뎡하고 부드런것이 목석간장

이라도 가히 감동할 만하다

(구) 이이 며느라 참을인스즈가 셋이면 살인도 모를단다 철모로는 네 식누의 관욕이가 소견업시 말을한날리 잇더리도 항혀나 노혀자말고 네 친동귀와 일반으로 녀여 남으러기도하고 타일으기도하여라 또그리고 하인비라는것은 오착한자적이 남의게미인 목숨이되어 스환을하고 엇어먹게는나그것들이 주착업시 짓거리난것를 아못조록 한귀로 듯고 한귀로 훌이어라

(박)

(구) 천이 왜저히도 우리집안에난 네가 제일리다 너라는 사람은 아주 살님을 주장하기는하나 얼마안이면 너를 스러막기고 나안줄것이오 관욕이로 말하면 아주 눈압히 닛스잇가 귀히도하고 응석도받지 리후년이라도 식집만 훌져보되면 우리집에 상관잇는나 남에집 식구이지 너로말하면 아티종부토죠상에향화를 받들사름인즉 그런소중흔 자격이 또누가잇겠는나

항며 아조위하고 받드난품이 썩류가듬은지라 박씨는 즈그식이머니가 넘오파도히 사랑한것이 도로혀 불안하여 주야로 동동축축히 지닌단티 어리석고 짐작업는 려승디는 세상에 귀출안인 아달며나리을 사랑하기난 즈그 마누라이상같이 가 다시업것이하여 구씨에 말리라면 열되드리 정말노만알아 주야장던 술만먹고 즈그 아들니외 걱정은 일호도 괘림치 안이항더라

구씨가 추월에게 교를듯고 즈그 남편 듯난티 며느리 잘못한 말을하여 무슨 거조를 너도룩한얏더니 거조난커영 즈그를 도로혀 권고를하며 며느리위하는마음이 굿건흔것을보고 병법을 얼핏들너써서 즈그가되집어 훨적 풀러바리고그며나리을 은소반받들듯 다시업시위하는 양을외이여 남편이 즈그를 겁히밋도룩한노라고 말쑤마다

우리며나리 우리며나리

항니 철모로는 관욕과 추월은 그니용은 모르고 락심천만하여 저에세리셔로모혀맛안지면

(추) 자근아씨 마님께셔 망영이 웨져러케 는셔슴잇가

(관) 글세다 마님께서 망영으로 우리종부 우리종부하시닛가 그장즈그가 뻔듯십어서 압다오두전목하는 설은 눈허리가 시여셔 참아못블너라

(추) 에그 자근아씨

(관) 그리

(추) 봉선화모종넬떡가 엇그제갓흔티 벌셔 철월이 되얏습니다다그려 아마오리지 안이항야 서방님이 파절을하고 오시겟시오

(관) 음바말이나

(추) 예!

(란) 옴바가 빅중날 파절을하시면 그이른날 곳 오신다더라

(추) 그러면 큰일났습이다

(란) 무슨 큰일리 낫단말리나

(추) 동괴간이신잇가 자근아씨계야 무슨일리 잇겟습닛가 마는 죽을년은 원네 밧게업습이다

(란) 웨네가 죽는단말이나

(추) 즈근아씨 생각을야보십시오 서방님께셔 서아기씨와 금실이 류업시도 흐신티 서방님께셔만 환닥을하시면 원네을 갈아마시지못하야 밤낮으르렁 거리는 은네란년이 을봄에 봉선화사건을 열갑절은 보타여 고자질을하게되 면서아씨계셔도 발명한마티 안이하야 줄리아오 원네를씩 그른년으로녀 이신티어니 자근아씨라야 마음 부족하신티어오 마님께셔는 망영이 나서셔 원 가그러니더러니 말한마티를 못하신티어오 마님께셔는 망영이 나서셔 원 네을위히 말씀하신티는지 밧고 발랄슈업고 그져 죽을년은 원네밧게 또누가 잇습닛가

(란) 이이 걱정말아라 손아티 사람은 죽을것이라드나 만일에 옴바가 그사건 으도하야셔 너다려 이러니져러니 말못하시거던 너가 할바탕 드러셔보겟다 마님이 아모리 망영이 드르섯기로 그떡가셔야 너혈육에 편들지 당신에게

얼도낭도안인 서방님편 들겟나나

(추) 에그 그러면 원네는 자근아씨만 티산곳치 밧습니다 그러치만은 자근아 씨계셔 우리 공론한말로 중용히 마님께 말씀을하야 보십시오 무엇이라고 티답을하시나

(란) 오나 그논걱정말어라 그리지안아도 나도그싱각이 잇섯다

구씨가 처음으로 식집을 와본즉 남편은 슈염이 푸르르날이고 철모로는 아달 은어머니어머니 불으니 참아 붓그러워 얼골을 잘못들다 너외간정이 차차들 고상하남녀의 낫이익숙하야 지닛가 붓그러던마음은 다엇의로가고 한가지 소견업는싱각이 들기를

너가 너외간 금실도도코 지삼이 너너하야 살님께 구츠론것이 업스니 식집 를 잘못왔다고할슈는 업스나 일변싱각음면 괴막현일 한가지가 잇지

아죽은 물덤병 술덤병 아모구별업시 모다 나의 주장으로 이러케 살지마은 경현이가 인제장가를 들고 나이츠면 이만가흔 살님이 모다 그의 츠지가되 고 나논이쓰고 알드리 굴은공업시 음악살리집이나 한처어더가지고 썩겨나 거는 그러지안으면 이집 뒤스방구셔에서 주는밥이나 엇어먹고 주는옷이나 엇어입고 아모권리 업시 산송장일테로 지닐터이니 그안이 괴막현일인가 하며 주스야타이 그집권리를 즈기싱전 잡고있다 자괴사후라도 경현이슈중

에 권리를 안이 도라보닐 궁이를 하는디 마음대로 하면 경현이를 엇더케 처치를 할던지 혼적도 업시 할련마은 원리려승지가 만득으로 그이를 나아이지 중지도 압을 써나게 못하고 상항가 경현이에 게 일호라도 잘못구난일이 잇스면 보던정알던정업시 그사름을 눈압히 갖가히 안이 하니 구씨가 엇지 하는슈 업서 자기 녀시 남편의 보비위를 할야 경현이를 은소반박들듯 할다가 락형으로 자기 타리가 잇스닛가 은근이 바라고 기디리기는 아모도 록 옥동갓은 아히을 나아스면 경현이는 초초 귀회를 보와 처치를 하고 다행속으로 이집 중순을 밋들 나라

항야 더니 세상스가 마음과 뜻과 궂기가 쉽지 못 할야 급기당착 할야 남자를 낮치 못하고 녀자를 나앗는지라 구씨가 낙심천만 할지만은 인역으로 할난슈가 업서

설을 나면 아달도 또 낫릿지

항는 마음으로 스스로 위로 하고 그설을 정성껏 기르는데 그의 일홈이 란옥이라 란옥이가 점점 자라즈 경현에 나히 십스제가 되니 박씨에게 장가를 드려난디 경현이가 자기 소성이 오박씨가 자기 소성이 나리갓호면 가슴에 아모총절이 업시 자미가 써쏘다 지듯 할련마은 오장이 반듯이 박이지 못 할 구씨라셔 효성

이 천조보다 일층더 호 경현과 범절이 백년된 나 할야 남에 뛰어나게 숙성 할박씨를 일일히 밋게 만싱각 할야 엇더케 할면

더것의 뇌외를 알련나 쉼아 버리듯 시원하게 업서 볼고 할야 취모며 자항기로 만 일을 숨으니

쉼만 혼츠퉁월이 난 상전에 눈에만 들나고 구씨에 심복이 되야 경현이 뇌외의 잇는 말 업는 말을 만드러 뇌기로 만 능사를 숨는다

마님 서방님이 장가 드르시기 전에 는 마님께 효성이 더럭 더럭 하시더니 엇지 히 이상시러 위오

구씨는 무슨 흠담이나 어더드르라고 웨서 방님이 뇌말를 무엇이라고 할더냐

(츠히) 마님말을 남듯게 할시기는 히스면 오히려 양징이나 되시게 눈치만 이상시러 위오

(구) 의례히 그럴러이지 나를 제어미로 알리가 잇겟느냐

(츠히) 서방님은 마님이나 하지만 안으실싸름이지 령감혈속이 시닛가 아모러케 이딴디도 오히려 흥함을 이 업스심니다마는 석아가 씨게서야 라성 량반으로

이딴디는 림되야 드러오시기는 일반이지 마님께 향 할야서 후박이 게 실싸름이 업스실싸름이 원네 보기에 는 다이상시러 위오

(구) 이이 나도 그리 눈치를 더러 보았다마는 너 보기에 도 무슨 것촌일이 잇디

나

(추) 원네갓치 미련흔년이 상던이식이시는 신부림이나 제할것 거헿할싸름이 지 무엇을 알겿슴잇가 마는 상던부모라니 마님을 부모쳐림 브라고잇슴논디 마님께 향하야 부족하게하는것을 보면 공연하 사지가 썩루루셀여오

(구) 아노렴 네가 웨안이 그러헿는나 그러는 무슨 부족헿것을 보앗니

(추) 그야 부족헿것을 흐두번만 보왔겿슴잇가 마는 무엇이라고 못잡아말슴하 기는 어렵슴이다 그중에 데일 분하기난 량반에 도리되셔서 당신속으로 식 어머님을 엿더캐녀이시던지 당신교전비 은네란년을 터리시고 마님홍 즈근 아씨홍을 시시썩썩로 보시니 원네마음의 분하기도헿련이와 실로 썩히외와 오

(구) 나를 시어미로알면 그리헿겿는나 나도저를 당초부터 며느리로 안이 안 다마은 외인소시에 엿지하난슈도 업고 데일령감게셔 나를 섬섭히녀이실갑 아 것흐로 얼녕얼녕지닌다마은 그리 저의드리 나를 홍을 무어이라고 보더 란말이나

(추) 그말을 무르실것이 무엇 잇슴닛가 마님께서 당신씩 잘구느니 못구느니 구씨가 화를너여

요년너까지 내게속말을 안이하고 말나 맞치려만 든단말이나 네가 바로말을 안이홀터이면 이당장으로 내눈압히 보이지말고 엿의로 진작가거라 나는아 달며느리도업고 종사지업는 스름이다

츨월이가 헿즈초마로 눈물을 흘착흐착써스며

(추) 원네논 이길로 나가셔 한강물에가 빠져 죽어버리겿습니다

(구) 요년 죽기는 웨죽어

(추) 원네가 시아가씨께 미음을 밧고 은네년의게 육을 먹어가며 마님한분만 하날갓치 브라고 잇논디 눈압히 보이지말나고 썩중을홍시니 설워셔웃더케 살라오 말슴을 바로엿좁고십지마은 안이홀말슴으로 드르면 병이오 안이드 르면 약이라고 마님께서 속이더상하실터이닛가 진작못엿주엇지 원네가 누 구를 위하야 마님을 속이라고 안이엿좁게슴닛가

(구) 네가 나를 속일이가 잇겿나나 너가 분정지도에 헿말이다 마는 이소견업 논것아 내속 상흔다고 남이 무슨 말을헿던지 너만듯고 말을아니 히셔스겿 나

(추) 다른말슴이 안이라 언의날은 달이 환이발근디 마님께서는 줌으시고 쯔 근아씨게셔 쯔각보를 모시다가 목이마르다고 물을 썩오라고하시논디 링슈 논 드릴슈가 업고 건넌방에 자리제가 남았나호고 가질너 가입더니 방안에

서 소곤소곤 말소리가 이상스럽게 나오기에 천에 생각에 서방님께셔나 드
러와 좁으시며 리약이 울호시나야 얼뚱문을 못 열고 감안이셔서 동정을 보노
란이 음성이 서방님이 안이시고 은혜란 연인티 아씨 말씀인지 은혜 말인지는
분간 못하겠셔도 마님 말씀을 하난티 령감께서 사모를 스시고 룯례를 행하셨스
닛가 마지 못하야 시어머니 티 접을 하야 주지 시어머니가 무슨 시어머니야 량
반이 창피하게 왕심리 똥거름장스의 쌀달려 천네가 그 소리를 듣고 치가 썰이
난것을 격지로 참고 더드르라고 응음은티 그때야말로 서방님이 정말 드러오
시난 바람에 더 못지 못하고 건너왔습시다

구씨가 그 말을 듯던이 얼골이 쇠파라게 질이고 이를 보드득 보드득 같고셔 안
간임을 공공스며

그 말하는 것을 네 귀로 정영드렸느냐 오나 너가 못견티나 제가 못견티나 좀히
보깃다

에 구이웬슈를 엇더케 하면 가슴이 시원하게 갑는 단 말인고 아모려도 일신이
썰이어서 잡시를 못참겟다 추월아 네 나아가셔 령감 좀 엇슈어라 당장 무슨
거조를 녀여야겠따

추월이가 박씨에 안이호말를 더문이 업시 지어녀여 구씨에 분을 도도기논 제
가 긴하 보이즈호것인티 만일 려승디에게 말을 하야 야단 못나고 보면 박씨는
그티 말을 호적이 업다호터이오 구씨는 분명이 호더라고 하야 초초징거를 티
난지경이면 제가 거짓말 호것이 자연 발각 되겟스잇가 약은 썩로 구씨를 만류
호다

(추) 마님께 무슨 말씀을 엇의 엇줍겟습닛가 압뒤 형편을 생각지 안이호시고
급피셔드시기부터 호심닛가

(구) 급히셔들다니 그러면 그런 육설을 듯고 아모말도 말고 잇단 말이나

(추) 애그 마님께셔 엇던세난 썩호신 말씀도 호셔오 급피머는 밤이 목이메인
담이다 식아기씨가 마님께 향하야 마음을 그 좁쓰건이 호시고 아모말씀 업시
예란듯이 구르시라면 마오그 지경으로 가진 그 아씨가 언의 꽃에 든지 잘못하난
일이 두렷시나라나지 안이호겟스잇가 그 때가셔 령감께 말씀을 하야 엇의 썩
지던지 분푸리를 하셔도 녀 녀호실티인티 당신 방속에서 종상연이 비밀호말
를가지고 거조를 하실라다가 그리호일리 업다고 썩잡아씨이면 그말이 필경
지어셔호거이 안이오 천네들른거슨 호적업는징거인즉 잘못하시다 마님께
셔 되집어 그른편으로 가시기가 천경 쉽습이다

(구) 내가 왜 그른편으로 간단 말이나 무슨 일을 잘못히길니

(추) 마님 마님께셔 생각을 하야 보시오 령감께서 어머니 안이계신 서방님을
외눈에 보쳐모양으로 이지중지호셔셔 장가를 들며 며나님을 티려다노으시고

금인지육인지 모로시게 사라하시난디 어둔밤에 흥두지 너밀기로 마님께서
 쇠네엿줍던 말씀은하시면 마님만 미타히 역이실썩안이라 익구진 쇠네다려
 석으기씨 무함하얏다고 오작하시겟슴잇가 그덕가셔는 발명무지로 첫저는
 마님 들저는쇠네만 그른곳으로 도라갈터이니 아모리 분함옵셔도 좀초으십
 시오

구씨가 입맛만 썩々다시고 한참안졌다가

(구) 네말을 드른이 그도그러히구나 그리면 분히셔 엇더케 권딘단말이나

(추) 마님께설낭은 감안히 계심시요 쇠네가 오날부터 썩살피보면 곱비가 길

면 드딘다고 설마한두가지 죄를발각할터이오니 쇠네만 밋고 계심시오

(구) 오냐 너만 밋고잇슴마 니가 이분푸리만 흥난날 아모리케하기로 너훈나

야 살도록 못하야 주겟느냐

(추) 그야 상덕의일하야 드리는것이 제도리옵지 잘살여 주서기를 브라고 하

겟슴닛가

(구) 그게 무슨 소리냐 상덕에 썩너를히도 발뒤스곱치가 회다는말이 안이닛

느냐 너는네도리라고 나는 너정으로 하는일이지

(추) 상덕만 바라옵지 이러케 히줍시오 더러케 히줍시오 말씀을 못하겟슴니

다

추월이가 그날부터 아모리박씨부인의 하즈를 잡아내라하야도 박씨부인이 쥔
 석문안과 감지공양을 일호도 방심안이하고 정성을 다하야하니 무슨말들 지
 어닐것이 업던초에 봉선화스건이 싱기나

올치 인제야 되얏다

하고 구씨에게 말을하야 려승대를 청하야 드려 그광경을 목견케하고 당장큰
 거조가 날거슬보져더니 거조는권영 려승디가 드러와 몇마디 슈작을하더니
 그며느리를 원슈치부하던 구씨부인이 되집어 속늑피가되야 우리며나리우리
 며나리하며 위하고 썩바드느것을보니 한업시기가막혀 란옥과 의론을하고 구
 씨에게 문의케식엿더라

(란) 어머니 읍바가 아마 얼마안이 잇다가 오겟지오

(구) 아마 쉬오겟지

(란) 나는 읍바오기전의 관슈라도 먹고 죽을터이야오

(구) 웨 죽기는 그대 무슨 방정마즌 소리냐 그리던 을아비가오면 반갑고 녀

오 도와져 죽는단말이야

(란) 그리지 안아도 읍바가 것호로는 도흔데히도 심속은 미워하논디 건너방
 형이 올봄 봉선화석문에 썩들던일을 몇갑절더벗티여 나만 그른곳조로너를
 더인디 읍바가 그런말을듯고 바로 날다려 말이는 헛스면 어머니는 모로난

처항신디도 너임으로나 발명을 시원히하련마는 말도시원이 안이하고 은근히 못먹겠다 할터이니 그 미움을 밧고 살아서 신세를 문엇히오

구씨가 징을너며

에그 쇼견도 너가 너을 미워셔 모로난데한단 말이나

(란) 미워항지안이항면 어업버항난것은 무엇잇셔오 나를 은근히 짐어먹지못 항야 밤낮으르렁으르렁항는 그스름은 아쥬우리며나리우리며나리항며 잘 항거나못항거나 썩밧들고 너말이라면 오른말이고 그른말이고 말뜻마다 듯 기실타고만항시니 어머니 마음도 다알앗셔오 음썩가와셔 나를 죽이려고 항야보오 어머니게셔 아스라고 말호나디 말여쥬시나 는난어머니 조식이닛가 죽거나살거나 어머니 잘못만났시지마는 날을위항야 죽도록 위를쓰던 쥬월아는 상던못만났으로 덩다라죽겿지오

구씨가 아모말업셔 담비만먹다가 란옥에손목을 잡아다리여 압히다안치고 입 밧게 간신히 나오는말로

아모리 어런것이기로 쇼견이 웃지면 그러케 미련항게 듯느냐 그리고십혀 그리느냐 응 조식도

항던이 란옥에 귀에다 입을디고 무슨말을 한참항고셔

(구) 오- 지각업셔 이말을 입박게너여라 일리죽도밥도 다들일터이니

(란) 어머니 마음이 그런줄볼나스닛가 말을히지 인제는 어머니 마음을 알고 셔야 말을 혈이가잇는요 쥬월이싸지라도 속일터인디

(구) 오- 쥬월다려도 아다음에는 엇지항던지 아직은 말을 말어라

쥬월이가 저의조근아씨를 썩여보너여 구씨에 말을드르라고 고디항고 안젧는 디 한구항야 란옥이가오더니 이러타저러타 말이업는지라 심히궁금히셔

(쥬) 자근아씨 마님께 엿주아보신닛가 무어이라고 디답을항셔오

(란) 디답이 다무엇이나 공연히 셋부른만을 엿주엇다가 눈이빠지게 걱정만 들엇다

(쥬) 무엇이라고 걱정을항셔드란 말슴이오 마님께셔 착실리 망영이 드르섯 구려

(란) 마님이 쥬증을항시기를 너는 오모리 너속으로 낫드리도 몇히후 시집만 가면 출가외인이될터이오 이런이 저러나히도 며느리는 나죽은후에 술호잔 이라도 그손으로 부어놀러인디 엇지라고와셔 짓거리느냐 나는 너썩젧것보 다며느리를 몇갑절더안다항시며 다시말호나디 못붓치게 아조 썩이시더라 쥬월이가 란옥에 말을 드르며 란옥에 얼골을 말그름히 쳐다보더이 설설우스

(쥬) 무어를 자근아씨가 더리면 누가 속를줄알고 마님께셔 참말로 그러케말

숨으셨셔보오 자근아씨가 더러케 티연무심하게 리약이틀하고 기신가 귀신
 은 속여도 나눈못속여 무엇이라고 호심더닛가 갑갑호오

(란) 애구 그이야 남은일스건 힘드려 말을호닛가 공년허져리네 참말이다 그
 러케 걱정을호시더라

(추) 웨이리호셔오 다키가 변연히 알고 말을호는티 덩말 그러케 말슴호시거든
 마님보시난티 압히셔 목점이라도히셔 도라가시지 그분을 참고 저모양으로
 얼골에 눈물흐점업시 웃난얼골노오셔오

(란) 웨눈물이 아니나 오겟는마는 부모가호시난 노릇을 지하즈되야 울지안아
 세상업시면 쓸티무엇잇나나 이의 우리도 건너방아씨와 으뭇조록 규각을
 다키말고 천밀하게 지닐도리을호야보자

(추) 자근아씨마즈 망령이 드러게시오구려 마님께셔 무어라고호섯길니 줄지
 에 마음이 변호섯슴닛가 바로날마다 시마다 그읍히가 거적을 설고 티죄를
 호며 살기전에야 규각이 안이나실줄 알르심닛가 마님께셔는 아모리그순아
 귀에 드르섯드리도 령감이 편이호시는 즂근아씨게셔 석벧티고 계시닛가
 그리도 얼마쯤 고기가되야 모음티로 함부로 못호지마는 자근아씨마즈고
 키가속으러저는 싹만되야 보십시오 여복 고고만장호야 설고안고 드티고
 별々일이 다안이잇나 자근아씨게셔는 은네싸지라도 똥을누거든 밋셔지씨

셔주실랴거던 씨셔주십시오 원네는 마님께 엿줍고 속량을호야 줍시사호야
 티문하을 호직호고 나아가겟슴이다

년치가만트리도 계집의소견이라느것은 앓혀서 속을 티다되기가 심상팔구인
 티나어리고 편협헌 란옥이가 엇지 제속을 티되이지 안이호리오 추월이가호
 직호고 나간단말에 입이갈려워셔 달여드려 추월에 손목을 탁잡고

이의 추월아 다키가 너다려 무슨말을 못호겟는나 마님께셔 부탁호시기를아
 모말도 입밖에 티지말나고 호시기에 다키가 너다려 진시 속말을못호얏다
 추월이가 그말를 듯더니 호칭 더뛰는말로

(추) 고만두십시오 그만호면 상년의 속도 알앗슴니다 원네곳흔 년다려 속소
 리호시게슴잇가 그리도 이천치년은 밋고브라기는 상년받게 업거니호고자
 다잡고티호듯 아껴셔지 짓거리고 잇섯지

(란) 이이 티말을 다듯고 말을허라 공연히 쳐듯지도 안이호고 썬들지밀고
 (추) 드러보외야 그러치 별말슴호시겟슴닛가

(란) 안이라 티말을 드러보면너도 분호심각이 업셔지리라
 호고역시 귀속말로 저에 어머니호던말 일장을닐으니 추월의 성닛던 얼골

이 봄바탈에 눈골이듯 상글상글우스며

(추) 원네는 그런줄 모르고 잇섯슴니다그려 마님도량이 적은 뵈으십니다즈

이 봄바탈에 눈골이듯 상글상글우스며

(추) 원네는 그런줄 모르고 잇섯슴니다그려 마님도량이 적은 뵈으십니다즈

근아씨께서도 오늘이야 알으셔슴이다 그려

(란) 네가 인제알라기의 그러치 미리알았스면 너을인제야 그려쳐주겟느냐

(추) 근아씨 원네부탁안이기로 어련이하시게슴잇가마는 썩만은 은네란년
에게 눈치뵈이실이다 평판에 물흘너가는듯이 조곰도 것침업게 지너십시오
원네도 리일뵈터는 은네란년에게 아쥬죽어뵈이며 살을베여 먹일듯이 정답
게글겟슴니다

일즈이후로는 그슴향던 란옥이와 귀용전잘쫓던 추월이가 다시는 그런버릇이
업시 란옥이논

형님々々 은네야은네야

고요 추월이논

시아기씨시아기씨 은네네형님 은네네형님

향며 춘풍화기가 뚝々듯게하니 박씨부인은 그것을 질정으로만알고 혼이업시
감격하야 더욱 짐신새스 미스를 차착업시향며 은네 후잘못할가 종종단속을향
더라

어언간경현이가 파절을향고 짐으로 도라오니 구씨가 별미로 썩을한다 육미
을 작만한다

먹어라먹어라

향며 즈이가 제상에 다시업게

에그경현아 심흔데위에 각고를호로라고 오작 고성을향앗겐느냐 시골른빈
디도더만코 반촌도 변변치못할터인디 밤잠인들 달게жат스며 쥬석인들 입맛
잇게 먹엇겟느냐 주인덕의셔 네게향하야 범연이 디접향섯슬리는 업겟지마
는 거적즈리라도 제집만못향고 폐장덩이라도 제집음식만 못향니라 공부향
기에 이를엇지셔논지 그도실도실향던 얼골이 것칠향앗구나

려승디를보고

(구) 여보령감 우리경현이 보약좀먹이시오 여름너짜치고오더니 얼골이 반죽
이 되얏구려 그이가우리집에 디들보가안아오 우리가 아뭇쥬록 알뜰이치산
을향는것은 저이향나 위향난노릇인디 저이의게 향하야셔야 앓가을것이 무
엇이오

(려) 보약은 무엇을 자라노라고 길들켜셔그러치 그셔지것이 무슨고성 념오
몸편히 잘잇다와셔 또사너즈식이 여간각고는 허보야야 씹넨다

이갓치 디범하게 말른향면서 첫지는 구씨에 말도 어렵고 들지는 아달스랑향
난모음으로 보약도치어다 쥬고 육미도 사셔쥬더라

상당흔 지식이업셔 쥬드른 풍월이라논것이 사룸에집 망히쥬기는 뚝알마즌것
이라 구씨가 지식이라고논 양셔쥬즈향나 모로지마는 안쥬업시질기는 소설원

에서 죽드론 풍월이 있어서 말쑥하다 신식문자를 제법 잘 쓰는 터이라 경현이를 집에 두고는 저그경운하는일이 여의치못하겠던지 향로는 종종 향을 시간을 타서 은근하게 집안스데에 장리를 의논하다가 문제하나를 쓰러너는터

(구) 령감 우리경현이 한문공부가 언의지경이나 되얏는요

(려) 그이가 지조가업지안이히서 제압가림은 너너히할만치 되얏는걸

(구) 그러면 그만히도 이세상에 막힐터업시 형제를향겟소

(려) 그개야 될수가있나 제압가림이라는것이 제성명이나 기록하고 잘잇나냐

못잇나냐 편지한장 남의손 안이빌고 할만하든말이지 막힐터업난것이 다무

엇이오 지금 한문을 능동훈디도 그것만가지고는 형제를향 성의도못향오

(구) 그러면 또무엇을 비와야 형제를 향든말이오

(려) 비을것 만치오 소위산술도잇고 소위어학도잇고 소위범률학 소위경제학

농학 공학 별별학문이 다만습니다

(구) 그러면 그학문을 비오라면 정성에 학교가 다잇는오

(려) 잇기는 명식이잇나 불의다마는 말들드른잇가 학교설비도 부족향고 정

비도 너너지못훈중 교스라던지 초품이라던지 모다 변변치못향야 동경가서

스오년이면 너너히비을것을 예셔도 룩철년 너지철팔년이라도 시원치못향

답디다

(구) 그러면 우리 경현이를 동경으로 류학을 보납시다 미삭에 학비터여주기 는어렵지마는 그것앗기여셔 그이가 우리집에 었던아들이라고 잘가라치지

안이하야셔 되겟소

려승디가 슈작을 못잘향다가 못난갑을 훈마디훈다

(려) 글제 닌들 그싱각이 업소마난 훈두달아니고 그것슬 스오년동안이나 웬

쳐에다두고 보고심어 못견딜싱각을향닛가 어티보너겟소

(구) 그개 말이오절이오 목전보고심은 스정을 못익의여 지식에 학문을 완전

하그라치지를 안이하단말이오 남이드르면 흥볼터이니 다시는 그런 말씀마

르시오

려승디가 구씨에말이 전정으로 집을위향야 장원훈계교인줄 알고셔 참아셔나

기어려온스정을 불게향고 즉시주선향야 경현을 동경으로 류학을보닛디라

경현은 본리 스상이활발향야 악착향적은 규모를 직히지아니할랴는디 동경으

로 류학을가라는 친교를듯고 한이업시 조와셔 장초 길을 떠나갈라할제 그날

밤들기를기디려 저그안악의 처소에 들어가 너외셔로 작별향는말이라

(경) 부인에 범절을 기급하안터이라 별로부락할 말씀은 업소마는 너가 장초

스오년간 집에를 도라오지 못홀터이기로 두어마디 향는것이오니 명심향시

기를바라오

(박) 엇더흔 부락이시던져 녀편네스름되어 가상뜻을 순종치 안이항을가망이 잇스오릿가

(경) 아모렴 그러하실터이지오 그런디 사름에 이별이라하는것은 계제를따라 면키 어려운것이라 목전에 리별이 섭섭하기가 칭량업는것이나 이별을향앗 다 다시만나는 날이면 그만온것이 오히려 리별하기 전보다 더흔 법인즉 오즉 섭섭함마음을 억제하고 이다음반가을 일을 기다리시오 니가아못조류 부모에 슬하를 떠나지마라스면 도흐련만은 친교도 폐지련아와 나역시 류학을향야 상당학문을비오고심훈고로 이려케 떠나가는것이니 부인은나 에디신으로 양당에 혼정신성과 조석공양을 극진이행시면 또난년누의는아 주나히어린 오히라 후미거흔 거조가 잇드리도 부디 규각너지말고 바른 도리로 인도향야 주시며 하례비드를 인의로부리여 짐안이 화순향도룩향시 기를 천만변바라고밋으로

(박) 정중향신 당부를일호인들 별년향오잇가마는 이스름에 지각이 용속향 와 밋으신바를 저바림 이슬서근심이로소이다

그두니외가 비록 연기가 어리나 지각이 띠오 속성훈터이라 수천리희의에를 떠나면서 서로작별향난말이 그갓치 정대할뿐이오 시속경박흔 남녀모양으로 천차하게 홀작홀작을며

어그스년이나 다섯히를 엇더케 기터리나 류학은히서 무엇히 이왕이라고 류학안이향고 살랏슬나구 먹을것이업나 짐에서 글공부나향고잇지

향며 썩썩을지를 안이향고 얼골에 조곰도 스식을 안이비아 보되는스름과 가 는스름에 마음이 피츠에 상하지안이향더라

박씨는 심분에 일이라도 식집형편을 후모른다향련이와 경현이야 그썩썩향아 히가 오지즈고집형편을 짐작못향리오 조흔말로 조그부인들 작별향고 떠나 기는향앗스나 은근하 심여되는일이잇서 남디향야 발포난못향고 조그가삼속 에서만 썩업시 왕리를향다 경인전차시간를 디여가노라고 상오여섯씨 일른아 침밥을먹고 부모압히 하직을향후 중문지나 디문밖을씩나서니 조그집이만리 인듯 련히뒤로 도라다되니는것을 억지로참고 일력거우에가 선뜻을나 안지니 인정업는 인력거스군이 압흐로 슈곳향고 경동경동뒤여 숲식간에 남디문밖정 거장에을 왔더라 살이 시위를 떠나며 관협에석지는 가는것은 면치못할스세 라 경현이가 인력거에서나려 고츠를향번타미 인련향구의와 별서너리엇고 인 련향구에서 룬션을향번타미 하관에와 발서너리엇고 하관에서 다시고츠를타 미 동경에와 별서너리엇더라 정결향고 종용향 려관향곳디 주인을정향고 성 스학교에 입학향야 열심으로 공부를향고잇더라

구씨가 경현을 류학향러가도록 운동향야 떠나보디기는 박씨부인의 경썩을써